



특수교육학 및 장애(교육)학 관점에서 바라본 국내 특수교육 연구 현실

강종구* · 김지연**

Reality of Special Education Research through the Lens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Disability Studies (in Education) Theory

Kang, Jong-Gu* · Kim, Jiyeon**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ed to deal with special education through “special education” that focuses on the educat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disability studies (in education)” that resist discrimination against disabilities and approach them in terms of diversity. **[Method]** This study analyzed the literature published in the last ten years (2010-2019) to explore the major characteristics and changes in special education and disability studies (in education). **[Result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disability studies (in education) are more conducted than special education in the academic discussion of special education in South Korea. Second, only two or three studies are conducted in the area of special education each year, and the studies dealt with a disability in general, not a specific category of disability. Further, the researches mainly used a literature review as a research method. Third, researches in special education focused on a medical model that emphasizes segregation or education for disabled students. On the other, the researches in disability studies (in education) mainly discussed the social model but made the neurodivergent approach recently. **[Conclusion]** This study insisted that more academic approaches and studies dealing with various theories and subjects needed to be done in special education. Besides, the study argued that discussions on “disability studies (in education)” should be actively carried out, which focuses on the education of disabled students.

Key Words : Special education, Disability studies, Disability studies in education, Literature review, Reality of special education research

* 제 1저자, 대구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교수
Professor, Dept. of Elementary Special Education, Daegu University

** 교신저자, 한국체육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교수(jykim@knsu.ac.kr)
Professor, Dept. of Adapted Physical Education,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국내의 특수교육 현장과 정책은 경도장애보다는 점차 중도·중복장애나 신체장애 중심으로 그 관심의 초점이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이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인지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일반교육과정의 적용이 어려운 장애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기본교육과정’과 시·청각 및 지체장애 학생의 장애 특징이 반영되어 있는 ‘공통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교육부, 2018). 이와 같이 현행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경우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중도·중복장애’ 학생과 같이 인지적 어려움이 심각하게 드러나는 장애 또는 ‘시·청각 장애’ 또는 ‘지체장애’와 같이 외부에 잘 드러나는 장애로 한정되어 적용되는 측면이 있다.

특수교육계의 관심이 인지적 또는 신체적 어려움을 가진 학생을 위한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현재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어 있는 교육환경 및 특수교육을 제공받고 있는 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비율을 통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첫째, 국내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학습장애, 정서·행동장애, 의사소통장애와 같이 경도장애에 해당되는 장애학생의 비율이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학습장애의 경우 10년 전에는 지체장애와 함께 2~3번째로 특수교육을 많이 받는 장애 유형에 해당되었지만, 현재는 특수교육대상자의 10개 장애 유형 중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교육부, 2019, 김지연, 2017). 이와 같은 현상에는 통합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 일반학교 통합학급에 대한 선호도 향상 등을 포함하여 경도장애학생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및 인식이 특수학급보다는 일반학급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점차 변화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강종구, 2013a, 2017). 둘째, 장애학생의 통합교육과 관련하여 인지적 및 신체적 장애유형과 관련된 논의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강종구, 최나리, 2019)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과 관련된 관심에 있어 인지적 및 신체적 장애 유형의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장애 또는 특수교육에 있어 중증장애학생의 비율 및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도장애학생의 특수교육에 있어서의 관심 및 지원은 줄어들 수 있다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특수교육이 중도·중복장애 또는 신체적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특수교육의 의료적 관점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애에 대한 전통적인 또는 관습적인 접근은 장애인을 치료의 대상으로 보는 의료적 모델을 통한 접근이며, 이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접근은 장애인의 문제보다는 장애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문제를 통해 장애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모델이다(Baglieri, 2017). 그러나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제공받는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운데 정도장애학생의 비중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중도 또는 신체적 장애의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된다면, 그리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등에 있어 중도 및 신체적 장애학생에 대한 관심 및 지원이 보다 강조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특수교육을 제공받는 학생의 장애에 있어서의 다양성은 감소하고 장애학생의 의료적·치료적 접근을 주로 강조하는 전통적 특수교육(Baglieri, 2017)으로 변할 수 있다.

특수교육이 중도·중복장애학생 중심의 교육의 방향성을 가지게 된다면,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은 다양하다는 교육적 다양성에 대한 접근(엄수정, 2017; Baglieri, 2017)보다는 장애학생만을 위한 교육이라는 분리교육의 틀에 갇혀서 진행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우려를 해결하고 비장애학생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교육적 지원 및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특수교육 자체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필요하다.

국내의 경우 이러한 학문적 논의는 소수의 연구들을 통해 이루어져왔다. 김병하(2008)의 ‘한국 특수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 논쟁’, 김병하(2019)의 ‘한국 특수교육철학의 정립: 희망과 존엄의 교육’, 정은(2002)의 ‘왜 ‘특수’인가? : 문화-역사적 관점에서 살펴 본 ‘특수교육학적 발상’의 사회적 의미’, 정은(2011)의 ‘특수교육학에 대한 반성적 성찰’등 특수교육에 있어서 학문 또는 철학 자체를 다루고 있는 연구들이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과 관련된 또 다른 학문이라 할 수 있는 장애학(엄수정, 2017)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장애학 자체를 다루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김진희, 홍정숙(2009)의 ‘통합교육 현장에서 자폐아동에 대한 인식 재구성: 한국과 미국 교사인식의 비교’, 고강호(2011)의 ‘시각장애인이 경험한 장애 의미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에서는 장애학의 관점을 적용하고는 있지만, 장애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았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학문이나 철학에 있어서의 고민과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담론이 활발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지만, 특수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학문적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 또는 특수교육에 대한 접근 또는 논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MacDonald(2019)는 장애에 대한 접근을 ‘생의학적 모델(biomedical model)’, ‘생심리사회적 모델(biopsychosocial model)’, ‘사회적 모델(social model)’, ‘비판적 현실주의 접근(critical realist approach)’, ‘후기구성주의 접근(post-structuralistic approach)’, ‘신경다양성 접근(neurodivergent approach)’과 같은 6가지로 구분하여(p. 1), 각각의 접근이 난독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다루었다.

MacDonalds(2019)는 생의학적 모델을 장애에 대하여 가장 관습적으로 다루어져 온

접근이며, 비교적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접근으로 신경다양성 접근을 언급하였다. 엄수정(2017)은 신경다양성 접근의 개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신경다양성(neurodiveristy)이라는 대안적 개념을 지지하는 나로서는 자폐를 질병으로 보거나 비정상성과 결부시키는 관점에 반대한다. 대신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지는 다양성의 일부, 특히 신경학적 다양성의 일부로 자폐를 이해하는 관점을 지지한다. (p. 156)

장애와 관련된 최근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 자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 특수교육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강종구(2014)는 국내 특수교육에서 학문적, 철학적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2010년부터 2014년 4월까지 출판된 16편의 문헌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들은 특정 장애 유형을 다루는 학술지보다는 특수교육 전반을 다루는 학술지에 주로 다루어졌으며, 학문적 접근의 경우 특수교육학 또는 장애학을 중심으로, 철학적 접근의 경우 포스트모더니즘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장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포스트모더니즘의 철학적 사상인 사회적 모델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연구 결과는 국내 특수교육이 크게 장애학 또는 특수교육학을 통해 논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강종구의 연구(2014)는 많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문헌 검토를 위해 ‘장애학’ 또는 ‘특수교육학’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문헌들을 검토하기는 하였지만, 이와 같은 학문적 접근들에 대한 연구 경향만을 다루고 있었다. 그러나 특수교육학의 경우 장애학생에 대하여 연구의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으며(김병하, 1998; 엄수정, 2017), 장애(교육)학은 장애학생의 문제보다는 장애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엄수정, 2017)는 지적처럼, 결국 장애와 관련하여 2가지 다소 상반된 관점에 있는 장애학과 특수교육학에 대하여 심층적인 분석을 하지 못했다. 둘째, 2014년 4월까지 발표된 문헌들을 대상으로 함으로서 2014년 이후 최근까지 특수교육의 학문적 논의는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최근에 다루어지고 있는 장애(교육)학 또는 특수교육학의 경향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최근 발표된 논문들인 MacDonalds(2019)와 엄수정(2017)의 논문들에서 장애학과 관련하여 ‘신경다양성’ 접근을 소개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특수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심층적인 학문적 논의에 대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강종구(2014)는 연구에서 ‘장애학’을 제목으로 사용하는 논문들을 다루었지만, 최근 엄수정(2017)이 자신의 논문에서 ‘장애교육학’을 통해 특수교육 또는 장애를 다루고 있듯이, 교육 분야에 장애학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엄수정(2017)은 “장애교육학은 1970년대 후반부터 북미와 서유럽에서

장애인 인권 운동을 바탕으로 발전해온 장애학(Disability Studies)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학문”으로 정의하고 있듯이(p. 140), 장애교육학은 장애학의 영향을 받았지만 교육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학’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의 교육과 관련된 학문인 ‘장애교육학’에 대한 논의 역시 중요하다고 하겠다.

결국 오늘날 국내에서 특수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현상을 파악하고 향후 특수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2가지 학문적 접근(장애(교육)학, 특수교육학)을 심층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현재 국내에서는 특수교육에 대하여 어떠한 학문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학문적 접근은 어떠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국내 특수교육과 관련된 철학적(이론적) 접근의 경우에는 포스트모더니즘을 통한 논의가 주로 있었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양한 관점을 통한 논의는 부족하다(강종구, 2014). 이에 반해, MacDonalds(2019)는 6가지 장애와 관련된 철학적(이론적) 논의를 제시하였으며, 특히 2017년도에 엄수정이 장애교육학의 접근으로서 제시한 ‘신경다양성’ 접근을 포함하여 6가지 이론적 모델을 통해 장애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이와 같이 장애학 및 특수교육학에 있어서 다양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 특수교육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장애학생의 교육과 관련하여 이론적 논의가 상당히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장애에 대하여 6가지 이론적 관점을 제시한 MacDonalds(2019)의 연구를 토대로 국내 장애학생의 교육과 관련된 문헌들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가질 필요가 있었다. 이와 함께, 강종구의 연구가 2010년대 초반까지의 문헌들을 고찰한 연구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이론적 경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10년 동안에 특수교육과 관련하여 2가지 주요한 상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특수교육’ 및 ‘장애학’이라는 학문적 접근에 대한 문헌고찰을 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제공하고 있는 MacDonalds(2019)의 관점을 통해 문헌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 ‘특수교육’ 및 ‘장애학’에 대한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특수교육’과 ‘장애학’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특수교육의 조작적 정의로서 장애에 대하여 전통적/관습적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애학생 개개인의 치료 및 재활에 중점을 두는 교육(Baglieri, 2017)

으로 정의하고자 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장애학에 대한 조작적 정의로서 장애학이란 기존의 전통적인 특수교육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을 가지면서, 장애에 대한 의료적/과학적 접근이 아닌 사회적 상황 및 다양성 관점을 통해 장애를 접근하려는 학문(조한진, 2011; Baglieri, 2017)으로 정의하고자 하였다.

3.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두 가지 상반된 학문적 접근인 장애(교육)학과 특수교육학을 통해 국내 특수교육 연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이론적 논의에 대하여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특수교육학 및 장애(교육)학의 연구 동향과 변인별 특징은 어떠한가?

둘째, 특수교육에 적용되고 있는 특수교육학 및 장애(교육)학의 이론적 논의는 어떠한 단계에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자료 선정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장애(교육)학 및 특수교육학과 관련된 문헌을 수집하였다. 첫째, 특수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장애(교육)학 및 특수교육학의 학문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최근 10년(2010년-2019년) 동안에 발표된 문헌을 검색하였다. 둘째,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에 발표된 문헌 중에서 논문 형식으로 발표된 문헌만을 검토 대상으로 하였다. 셋째, 국내 학술저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 한국학술정보원(KISS), 누리미디어(DBpia),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4YOU), 학지사뉴논문(NEWnonmun)을 통해 문헌을 검색하였다. 넷째, '주제어(키워드(명))'로 '장애학,' '장애교육학,' 또는 '특수교육학' 용어가 사용된 문헌을 검색하였다. 다섯째, 특수교육 또는 장애학생의 교육과 관련된 문헌만을 검토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특수교육 또는 장애학생의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문헌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여섯째, 중복된 문헌 또는 논문 형태가 아닌 학술대회 발표 자료 등으로 제시된 문헌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설정한 6가지 방식으로 검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KISS 검색의 경우, 주제어로 '장애학'을 검색한 결과 '장애학'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 등이 검색되었다. 370편의 검색 결과 중 14편이 '장애학'에 해당되었고, '장애교육학'이 주제어인 경우에는 2편 가운데 1편이 해당되었으며, '특수교육학'이 키워드인 경우에는 17편 가운데 2편이 해당되었다. 이 중, '장애학생'과 같이 '장애학' 또는 '장애교육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다루지 않는 문헌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마찬가지로 '특수교육학'의 경우에도 '특수교육학개론'과 같이 '특수교육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문헌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학'이 주제어에 해당되는 문헌은 8편(강종구, 2013; 강종구, 김건희, 2010; 안상권, 임미향, 강종구, 2015; 엄수정, 유애란, 2015; 우충환, 2017; 정희섭, 2017; 조원일, 2012; Choi, 2010), '장애교육학'이 주제어에 해당되는 문헌은 1편(엄수정, 유애란, 2015), '특수교육학'이 주제어인 논문은 2편(김남진, 2015; 김영준, 도명애, 2014)이 있었다. 이와 같이 KISS로 검색된 문헌은 11편이었다.

둘째, DBpia 검색의 경우 주제어로 '장애학'을 검색한 결과 32편이 검색되었으며, 이 중 등재(후보)지로 표시되지 않은 문헌 10편, 중복으로 검색된 문헌 1편이 있었다. 이를 제외한 21편의 문헌에서 장애학생의 교육 또는 특수교육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논문은 4편(강종구, 2013, 2014; 우충환, 2017; 조원일, 2012)이 해당되었다. '장애교육학'이 주제어인 경우에는 5편이 검색되었다. 이 중 등재(후보)지로 표시된 문헌은 2편(강종구, 2014; 김영준, 도명애, 2014)이 있었다. '특수교육학'의 경우 15편이 검색되었으며, 이 가운데 등재(후보)지로 표시되지 않은 문헌이 8편이 있었다. 나머지 7편의 문헌 중에서 '특수교육학 개론' 수업 등과 같이 '특수교육학'의 학문적 논의를 주로 다루지 않는 논문을 제외하고 '특수교육학'을 중심으로 다루는 논문은 2편(강종구, 2014; 김영준, 도명애, 2014)이 해당되었다. 따라서 DBpia를 통해 검색된 문헌은 8편으로 나타났다.

셋째, RISS의 검색의 경우, 주제어로 '장애학'을 검색한 결과 36편이 검색되었다. 중복으로 검색된 문헌 1편을 제외한 35편의 문헌 중에서 장애학생의 교육 또는 특수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문헌과 '장애학생부모'와 같이 '장애학'이 주제어에 해당되지 않는 문헌을 제외하고 12편(강종구, 2013, 2014; 강종구, 김건희, 2010; 박남수, 2015; 안상권, 임미향, 강종구, 2015; 엄수정, 유애란, 2015; 우충환, 2017; 원종례, 엄수정, 2010; 정희섭, 2017; 조원일, 2012; Choi, 2010; Kim, 2016)이 해당되었다. '장애교육학'이 주제어인 경우에는 12편이 검색되었다. 이 가운데 중복된 문헌 2편을 제외한 10편 중, '특수교육학,' '특수교육학개론'과 같이 '장애교육학'이 주제어로 사용되지 않은 문헌 7편을 제외하고 3편(엄수정, 2017, 2018; 엄수정, 유애란, 2015)이 해당되었다. 주제어로 '특수교육학'을 검색한 결과 26편이 검색되었다. 이 중 중복으로 검색된 문헌 2편,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문헌 1편을 제외하고 23편의 문헌에서 '특수교

육학개론'과 같이 '특수교육학'이 주제어로 사용되지 않는 문헌을 제외한 5편(강종구, 2014; 김남진, 2015; 김영준, 도명애, 2014; 엄수정, 유애란, 2015; 황순영, 2013)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RISS를 통해 검색된 문헌은 최종적으로 20편이 해당되었다.

넷째, NEWnonmun을 통해 검색한 결과 '특수교육학'을 키워드로 사용하는 논문은 3편 있었으며, 이 중 '특수교육학'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 논문 1편을 제외하고 2편이 검색되었다(황순영, 2013; 정용석, 2018). '장애교육학'을 주제어로 사용하는 논문은 2편(엄수정, 2017, 2018) 있었다. '장애학'을 주제어로 사용하는 논문은 5편이 있었으며, 이 중 장애학생의 교육과 관련이 없는 논문 2편을 제외하고 3편의 논문(강종구, 2016; 이수연, 박종영, 박정자, 이은숙, 2013; 정용석, 2018)이 있었다. 따라서 NEWnonmun을 통해 검색된 문헌은 최종적으로 7편이 해당되었다.

이상과 같이 4가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DBPia, KISS, RISS, NEWnonmun)을 통해 검색된 문헌 46편에서는 중복되는 문헌이 다수가 있었다. 이 중 5편이 중복으로 검색된 논문은 2편(강종구, 2014; 엄수정, 유애란, 2015), 4편이 중복으로 검색된 논문은 1편(김영준, 도명애, 2014), 3편이 중복으로 검색된 논문은 3편(강종구, 2013; 우충환, 2017; 조원일, 2012; 황순영, 2013), 2편이 중복으로 검색된 논문 9편(강종구, 김건희, 2010; 김남진, 2015; 안상권, 임미향, 강종구, 2015; 엄수정, 2017, 2018; 정용석, 2018; 정희섭, 2017; 황순영, 2013; Choi, 2010)의 중복 사례를 제외하면, 총 20편의 논문이 검토대상에 해당되었다.

2. 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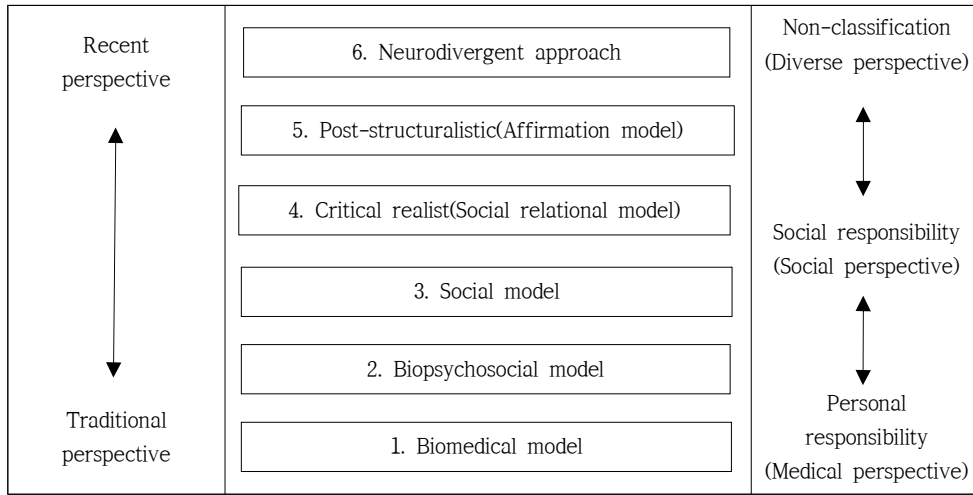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연구문제에 해당되는 특수교육학 및 장애(교육)학의 연구 동향 및 연구의 변인별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Bogdan과 Biklen(2007)과 Creswell(2013)이 질적 자료에 대한 분석 방법으로 제시한 지속적인 비교 분석(constant comparative analysis)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지속적인 비교 분석 방법은 자료에 대하여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유사한 의미들에 대하여 부호화(coding)를 하고, 유사한 내용들에 대하여 범주화(categorization)하는 과정을 가진다(Bogdan & Biklen, 2007; Creswell, 2013). 본 연구에서는 주제 및 변인에 대하여 유사한 내용들끼리 범주화를 하였으며, 이를 통해 연구 동향으로서는 학문 유형과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분류하였으며, 변인별 특징으로는 학술지 유형, 연구방법, 장애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연구 문제인 '특수교육학 및 장애(교육)학의 이론적 논의의 단계'에 대한 분석으로서 장애(교육)학 및 특수교육학과 관련하여 검토대상으로 선정된 20편의 논문을 MacDonalds(2019)가 제시한 6가지 장애와 관련된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MacDonalds(2019)는 그의 논문(From ‘Disordered’ to ‘Diverse’: Defining six sociological frameworks employed in the study of dyslexia in the UK, ‘장애’로부터 ‘다양성’에 이르기까지: 영국에서 난독증 연구에 사용된 6가지 사회적 틀을 정의하기)에서 다음과 같이 6가지 장애와 관련된 이론을 제시하였다:

첫째, 생의학적(biomedical) 모델이다. MacDonalds(2019)는 “생의학적 관점에서 장애를 근절하기 위해 의학은 손상의 생리학적 측면을 다루고 치료해야만 한다.”라고 기술하였다(p. 5). 둘째, 생심리사회적(biopsychosocial) 모델로, “생심리사회적 모델은 장애를 정의하기 위하여 의료서비스 내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배적인 접근이다.”라고 기술되었다(p. 6). 셋째, 사회적(social) 모델로, “이와 같은 관점으로부터, 사회적 모델은 장애와 관련된 문제를 기능장애적인 병적 측면 때문이 아니라 사회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인 구조적 장벽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기술된다(p. 10). 넷째, 비판적 현실주의(critical realism) 접근 또는 사회관계적 모델이다. MacDonalds(2019)는 “그것[사회관계적 모델]은 손상의 영향과 구조적으로 장애를 만드는 장벽에 있어서의 관계를 인식하는 상호작용주의 접근을 통합하려고 시도한다.”라고 설명하였다(p. 12). 다섯째, 후기 구성주의(post-structuralism) 접근 또는 긍정 모델로, “긍정 모델은 원래는 Swan과 French(2000)가 정의한 것으로, 장애와 손상에 대한 더 긍정적인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모델은 정상(normality)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정상이 된다는 것은 특정한 사회적 수행이 요구된다고 진술하고 있다.”라고 기술하였다(p. 15). 여섯째는 신경다양성(neurodiversity) 접근으로, 저자는 난독증과 관련된 신경다양성 접근에 대하여 “사회적 모델과는 달리 신경다양성 관점은 ‘장애’와 ‘손상’의 개념에 대하여 완전한 거부를 한다. 이러한 거부는 ‘장애’와 ‘손상’의 용어는 생의학적 틀 내에서 난독증을 자리 잡게 하는 의료적 구성이라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라고 하였다(p. 17).

본 연구에서는 MacDonalds(2019)가 제시한 장애에 대한 6가지 이론 및 이에 대한 주요 개념을 <그림 1>과 같이 제시하고자 하였다.



<Figure 1> Theory and Concept of Disability

<그림 1>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위로 갈수록 비교적 최근에 제시되어지고 있는 관점이며, 또한 장애로 명명된 개인에 대하여 다양성의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검토대상 문헌의 장애에 대한 관점이나 그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루거나 주장하고 있는 것이 6가지의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지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특수교육학 및 장애(교육)학 연구의 특성

1) 특수교육학 및 장애(교육)학의 전반적 연구 동향

특수교육에 대하여 학문적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20편의 논문들을 검토한 결과, 크게 장애(교육)학, 특수교육학, 장애(교육)학 및 특수교육학 분야에서 특수교육을 다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분류에 따른 구체적인 문헌에 대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Table 1> Research topics and the area of study of the reviewed papers

학문 유형	연구자	연구 주제	
Disability Studies (in Education) (14 studies)	Disability Studies (11 studies)	Kang, J. G. (2013)	Research trends in inclusive education
		Kang, J. G. (2016)	Research trends in the education for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s
		Kang, J. G. & Kim, K. H. (2010)	Research trends in disability studies applied in special education
		Park, N. S. (2015)	Human rights education in social studies
		An, S. et al. (2015)	Participation in policies of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Woo, C. W. (2017)	Perception of pre-service teachers
		Lee, S. et al. (2013)	Education for understanding of disabilities
		Won, J. L. & Um, S. J. (2010)	Teacher education program
		Cho, W. (2012)	Rethinking disability policies
		Choi (2010)	Parental experiences associated with disabled children
		Kim (2016)	Education of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Disability Studies in Education (2 studies)	Um, S. J. (2017)	Rethinking teacher preparation
		Um, S. J. (2018)	Disrupting framing of ex/inclusion in schools
	Disability Studies, Disability Studies in Education(1 study)	Um, S. J. & Yoo, A. R. (2015)	Reimagining special education from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Special Education (4 studies)	Special Education (4 studies)	Kim, Y. J. & Do, M. A. (2014)	Independent living of disabled students in future adulthood
		Kim, N. J. (2015)	Identity of special education
		Chung, Y. (2018)	Identity of special schools
		Hwang, S. (2013)	Support for children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Disability Studies & Special Education (2 studies)	Disability Studies & Special Education (2 studies)	Kang, J. G. (2014)	Academic and philosophical trends of special education
		Jung, H. (2017)	Characteristics of low on the inclusive education

<표 1>에 제시된 것처럼, 국내 특수교육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장애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특수교육학만을 다루는 연구는 4편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장애

(교육)학과 관련된 16편의 논문 중에서 특정 저자가 포함된 논문들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종구가 저자에 포함된 논문이 5편(강종구, 2013, 2014, 2016; 강종구, 김건희, 2010; 안상권 등, 2015), 엄수정이 저자에 포함된 논문이 4편(엄수정, 2017, 2018; 엄수정, 유애란, 2015; 원종례, 엄수정, 2010)으로서 두 명의 연구자가 전체 장애(교육)학 검토대상 논문의 50% 이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소수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장애(교육)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문헌들의 연구주제를 살펴보면, 학문의 연구 경향을 다루는 연구가 4편(강종구, 2013, 2014, 2016; 강종구, 김건희, 2010), 특수교육 또는 특수학교의 정체성과 관련된 연구가 4편(엄수정, 2018; 엄수정, 유애란, 2015; 김남진, 2015; 정용석, 2018), 법 또는 정책과 관련된 연구가 3편(안상권 등, 2015; 조원일, 2012; 정희섭, 2017), 장애아동의 지원과 관련된 연구가 3편(Kim, 2016; 김영준, 도명애, 2014; 황순영, 2013), 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가 2편(엄수정, 2017; 원종례, 엄수정, 2010), 인권교육과 관련된 연구(박남수, 2015), 교사인식과 관련된 연구(우충환, 2017), 장애이해와 관련된 연구(이수연 등, 2013), 장애아동 부모에 대한 연구(Choi, 2010)가 각각 1편 있었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는 장애(교육)학 또는 특수교육학을 통해 다루어진 연구 주제는 연구 경향 또는 특수교육/특수학교의 정체성과 관련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법/정책, 지원과 관련된 연구들이 그 다음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특수교육학 및 장애(교육)학 연구의 특성

특수교육학 및 장애(교육)학 연구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강종구, 2014; 강종구, 오세철, 2019)에서 사용한 변인별 분류 방법을 참조하여, 출판연도, 학술지 유형, 연구방법, 장애유형과 관련된 4가지 주요 변인별 특징들로 구분하였다. 이 중 학술지 유형별 특징과 관련해서는 강종구(2014)의 연구(‘특수교육의 학문적·철학적 경향 고찰’)에서 분류하고 있는 방법을 참조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특수교육 학술지의 특징을 ‘특수교육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학술지,’ ‘특정 장애영역을 중심으로 다루는 학술지,’ ‘교과지도, 재활, 치료에 중점을 둔 학술지’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수정·보완하여 ‘특수교육 전체를 다루는 학술지,’ ‘특정 장애유형을 다루는 학술지,’ ‘기타 학술지’로 구분하고자 하였다.

20편의 문헌들에 대한 분석 결과 발표연도, 게재학술지 유형, 연구방법, 장애유형과 관련된 변인들에 있어 <표 2>와 같은 특징이 나타났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papers dealing with ‘Disability Studies (in Education)’
or Special Education’ by variables**

Researchers	year	Types of the Journal	Research methods	Types of disability
An, S. et al.	2015	Special education in general	Literature analysis	-
Cho, W.	2012	Specific type of disability	Literature analysis	-
Choi, B.	2010	Special education in general	Literature analysis	-
Chung, Y.	2018	Specific type of disability	Literature analysis	-
Jung, H.	2017	Special education in general	Literature analysis	-
Kang, J. G.	2013	Special education in general	Literature analysis	-
Kang, J. G.	2014	Special education in general	Literature analysis	-
Kang, J. G.	2016	Specific type of disability	Literature analysis	Visual impairments
Kang, J. G. & Kim, K. H.	2010	Special education in general	Literature analysis	-
Kim, K. H.	2016	Special education in general	Literature analysis	Autism spectrum disorders
Kim, N. J.	2015	Special education in general	Literature analysis	-
Kim, Y. I. & Do, M. A.	2014	Special education in general	Literature analysis	Developmental disabilities
Lee, S. et al.	2013	Specific type of disability	Survey	-
Park, N. S.	2015	Others	Literature analysis	-
Um, S. J. & Yoo, A. R.	2015	Special education in general	In-depth interview	Sensory disabilities and physical disability
Um, S. J.	2017	Others	Narrative inquiry	-
Um, S. J.	2018	Others	Anecdotal analysis	-
Whang, S.	2013	Others	Literature analysis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Woo, C. W.	2017	Others	Interview	-
Won, J. L. & Um, S. J.	2010	Special education in general	Interview and observation	-

(1) 연도별 특징

연도별 발표된 논문의 경우 2010년 3편(강종구, 김건희, 2010; 원종례, 엄수정, 2010; Choi, 2010), 2011년 0편, 2012년 1편(조원일, 2012), 2013년 3편(강종구, 2013; 이수연 등, 2013; 황순영, 2013), 2014년 2편(강종구, 2014; 김영준, 도명애, 2014), 2015년 4편(김남진, 2015; 박남수, 2015; 안상권 등, 2015; 엄수정, 유애란, 2015), 2016년 2편(강종구, 2016; Kim, 2016), 2017년 3편(엄수정, 2017; 우충환, 2017; 정희섭, 2017), 2018년 2편(엄수정, 2018; 정용석, 2018), 2019년 0편이 발표되었다. 이와 같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발표가 안 된 연도(2011년, 2019년)도 있으며, 4편이 발표된

연도(2015년)도 있지만, 장애(교육)학/특수교육학을 주제로 사용하는 연구는 매년 2편 정도 꾸준히 다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2010-2014년까지 5년 동안 발표된 논문이 9편, 2015-2019년까지 발표된 논문이 11편임을 고려할 때, 특수교육의 학문적 논의는 여전히 많은 관심을 못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Table 3> Year of publication in the articles reviewed in this study

Year of publication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Number	3	1	·	3	2	4	2	3	2	·	20

(2) 게재학술지 유형

게재학술지 유형에 있어서는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와 같이 특수교육 전체를 다루는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 11편(강종구, 2013, 2016; 강종구, 김건희, 2010; 김영준, 도명애, 2014; 김남진, 2015; 안상권 등, 2015; 엄수정, 유애란, 2015; 원종례, 엄수정, 2010; 정희섭, 2017; Choi, 2010; Kim, 2016)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교원교육연구’와 같이 기타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 5편(박남수, 2015; 엄수정, 2017, 2018; 우충환, 2017; 황순영, 2013), ‘시각장애연구’와 같이 특정 장애유형을 다루는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 4편(강종구, 2014; 이수연 등, 2013; 정용석, 2018; 조원일, 2012) 있었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는 특수교육 전체를 다루는 학술지에서 학문적 논의가 주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특수교육 분야가 아닌 기타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 특정 장애유형을 다루는 학술지보다 더 많이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특정 장애유형을 다루는 학문적·철학적 고찰이 부족하다는 강종구(2014)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서, 여전히 국내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학문적 논의가 총론적 수준에만 머무르고 각론적 수준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와 함께, 기타 학술지에 5편이 발표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최근 들어 특수교육 이론과 관련된 연구들이 특수교육 분야를 넘어서 다른 학술지들에서도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Table 4> Types of journal in the articles reviewed in this study

Types of journal \ Year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Total
Special education in general	3	·	·	1	2	3	1	1	·	·	11
Specific types of disability	·	·	1	1	·	·	1	·	1	·	4
Others	·	·	·	1	·	1	·	2	1	·	5
Total	3	·	1	3	2	4	2	3	2	·	20

(3) 연구방법

연구방법의 경우 <표 5>에 나타난 것과 같이 문헌연구 방법이 14편으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검토대상 문헌들은 대부분 특수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장애(교육)학/특수교육학에 대해 문헌연구를 통해 개념을 소개하고 담론을 펼쳐나가며 이론적 논의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문헌연구가 아닌 다른 연구방법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특히 엄수정(2017, 2018), 엄수정, 유애란(2010), 원종례, 엄수정(2010)은 면담, 일화분석과 같은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장애학이 특수교육 현장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심도 깊게 다루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연구들은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져서 연구 방법이 다각화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5> Research methods in the articles reviewed in this study

Research method	Year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Total
Literature analysis	2	·	1	2	2	3	2	1	1	·	14
Narrative inquiry	·	·	·	·	·	·	·	1	·	·	1
Anecdotal analysis	·	·	·	·	·	·	·	·	1	·	1
Interview	1*	·	·	·	·	1	·	1	·	·	3
Survey	·	·	·	1	·	·	·	·	·	·	1
Total	3	·	1	3	2	4	2	3	2	·	20

* Interview and observation

(4) 장애유형

장애유형별 특징과 관련해서는 검토대상 논문 대부분은 특정 장애유형보다는 장애 전반에 대하여 다루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논문들의 경우에는 특정 장애유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 가운데는 인지적 어려움과 관련된 연구로서 자폐범주성장애와 관련된 연구(Kim, 2016), 정서행동장애와 관련된 연구(황순영, 2013), 발달장애와 관련된 연구(김영준, 도명애, 2014)가 있었으며, 감각 또는 신체적 어려움과 관련된 연구로서 시각장애와 관련된 연구(강종구, 2016)와 감각 및 뇌병변 장애와 관련된 연구(엄수정, 유애란, 2015)가 있었다.

장애유형별 특징의 경우 일반적으로 장애(교육)학에서 다루고 있는 장애유형의 특징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특히 역사적으로 장애학에서는 여러 장애 유형 중에서 신체적 장애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많다는 사실(강종구, 엄수정, 홍애령 역, 2019)을 감안한다면, 국내에서는 장애(교육)학에서 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지체장애 관련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로부터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검토대상 논문 20편 가운데 지체장애와 관련된 학술지인 ‘지체·중복·건강장애연

구’에 발표된 논문이 2편(우충환, 2017; 조원일, 2012) 있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지체장애에 한정된 연구가 아니라 전반적인 장애 영역을 다루고 있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장애(교육)학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장애(교육)학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지체장애 관련 전문가들처럼 국내에서도 지체장애 관련 전문가들의 장애(교육)학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Table 6> Types of disabilities in the articles reviewed in this study

	Disability in general	Types of disabilities					Total
		Visual impairment	Emotional and behavior disturbance	Autism spectrum disorders	Developmental disabilities	Sensory or physical disabilities	
Number	15	1	1	1	1	1	20

2. 특수교육의 이론적 단계: MacDonalds의 6가지 이론의 적용

MacDonalds(2019)가 제시한 6가지 이론적 모델을 적용하여 국내 특수교육 관련 연구들의 이론적 특징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특수교육학 관련 논문들의 이론적 특징

특수교육학 관련 4편의 논문들을 검토한 결과 MacDonalds(2019)가 제시한 6가지 이론적 모델 가운데 첫 번째 모델인 생의학적 모델을 통한 논의가 그 중심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는 논문에서 주로 사용하는 표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정용석(2018)은 ‘특수교육학’관점을 통해 장애학생의 분리교육 환경인 ‘특수 학교’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으며, 결론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특수교육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특수학교가 부족하기 때문에 특수학교 설립이 증가되어야 한다. 둘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또는 추후 관련법에서 통합교육이 법의 목적으로 명기된 것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 특수 교육학은 통합과 분리의 이데올로기 보다 어떻게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p. 243)

정용석(2018)은 이와 같은 결론을 통해 현재 특수교육은 일반교육과는 차별화되는 자체적인 교육 목적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특수교육대상자만을 교육하는 분리교육 환경인 특수학교의 설립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함을 주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비장애학생과 함께 하는 교육환경만으로는 장애학생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장애학생만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특수교육의 분리교육은 장애학생이 문제의 원인이 있고, 따라서 일반 사회는 문제가 없다는, 따라서 비장애인들의 변화가 아닌 장애인들의 보호 또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다소 의료적 접근이 내포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강종구, 엄수정, 홍애령 역, 2019). 물론 국내 특수교육 현실을 고려할 때 특수교육대상자가 현재의 교육 환경에서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보다 집중적이고 적절한 교육적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반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수교육 관련 지원 등이 부족한 것도 영향이 있다. 따라서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급, 통합학급 모두를 포함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환경을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강종구, 고혜정, 김라경, 2018).

반면 황순영(2013)은 사회적 모델의 관점을 취하고 있었는데, 황순영은 특수교육에서의 현행 장애학생에 대한 병리적 접근을 비판하면서 사회적 접근의 필요성을 다음과 언급하였다.

첫째, 정서·행동 문제아동에 규정에 대한 특수교육학적 인식의 변화를 촉구한다. 정서·행동 문제는 개인의 병리 문제로 보기보다 사회가 구성해낸 것이다. (p. 116)

그러나 황순영(2013)은 정서 및 행동장애아동에 대한 용어를 ‘정서·행동 문제아동’으로 지칭하였는데, 이는 장애아동을 여전히 문제가 있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의료적 관점을 중심으로 특수교육을 접근하는 경향이 있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은 논문의 결론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정서·행동 문제 아동들이 보이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기존의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키고, 이들 개인의 적응력과 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특수교육학적 중심의 지원방안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p. 117)

위 문장에서도 나타난 것과 같이 아동이 처한 어려움을 ‘다양한 문제’로 언급함으로써 정서·행동장애아동의 경우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회 전체의 변화나 노력보다는 개인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장애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육학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황순영(2013)이 다루고 있는 특수교육의 이론적 접근은, 현행 의료적 접근에 대한 문제의식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의료적 접근을 중심으로 정서·행동장애학생을 다루고 있는 한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특수교육학’과 관련된 김남진(2015)과 김영준, 도명애(2014)의 연구에서는 장애에 대한 관점을 특별히 드러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다른 학문적 영역과 특수교육을 구별하려고 하는 김남진(2015)의 연구와 장애학생의 자립 및 재화에 중점을 두고 장애학생이 성인으로 전환되는 시기 동안 어떠한 성취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룬 김영준, 도명애(2014)의 연구는 장애에 대한 접근을 다양성 측면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장애학생 개개인의 문제로 접근하는 의학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2) 장애학 관련 논문들의 이론적 특징

장애학 관련 11편의 논문들을 검토한 결과 대다수의 논문들이 MacDonalds(2019)가 제시한 6가지 이론적 모델 가운데 세 번째 모델에 해당되는 사회적 모델의 접근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우선 장애학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이론적 접근을 전통적 접근인 의료적 모델과 이에 저항하는 사회적 모델이라는 2가지 모델로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모델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논문들이 8편(강종구, 2013, 2016; 강종구, 김건희, 2010; 박남수, 2015; 안상권 등, 2015; 이수연 등, 2013; 조원일, 2012; Choi, 2010; Kim, 2016)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외의 논문들은 사회적 모델을 포함하거나 사회적 모델이 아닌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사회적 모델과 함께 추가적인 모델을 다루는 경우가 있었는데, 우충환(2017)은 장애학이 다루고 있는 이론적 특징으로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장애학은 비장애중심의 사회적 담론과 물리적 환경 등이 장애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회적 모델과 장애를 성별, 인종, 계급, 종교, 성적 지향 등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정체성과 문화로 간주하는 소수자 모델을 지향한다(Ellis, 2008; Garland-Thomson, 1997; Linton, 1998; Woo, 2012). (p. 25)

우충환(2017)이 제시하고 있는 소수자 모델은 “비판이론은 일반적으로 인종(race), 계층(class), 성별(gender) 간의 불균형한 권력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Darder, Batodano, & Torres, 2002; Kincheloe & McLaren, 1998)”(강종구, 2017, p.5)에서 알 수 있듯이 일종의 ‘비판이론’ 또는 ‘불균형한 사회적 관계 이론’이다. 이는 MacDonalds(2019)가 제시한 6가지 단계 가운데 4번째 단계인 ‘비판적 현실주의(사회관계적 모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충환은 장애학을 ‘사회모델’과 ‘비판적 현실주의’의 두 가지 접근법을 통해서 다루었다고 할 수 있다.

원종례, 엄수정(2010) 역시 우충환(2017)과 마찬가지로 장애학에 대하여 다양한 접근을

언급하고 있다:

장애학에서 장애는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사회의 부산물로 정의된다. ... (중략) ... 따라서 장애학은 어떠한 사회의 가치체계로 인해 특정한 누군가를 어떻게 차별되고 소외되는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생각의 틀을 제공한다. (p. 27)

위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원종례, 엄수정(2010)은 ‘사회적 합의’ 및 ‘비판적인 시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생각의 틀’을 언급함으로써 ‘사회모델’과 함께 ‘비판적 현실주의’라는 2가지 접근법을 통해 장애학의 접근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장애교육학 관련 논문들의 이론적 특징

장애교육학 관련 2편의 연구(엄수정, 2017, 2018)는 장애교육학에 대하여 유사하게 설명하고 있다. 먼저 엄수정(2017)은 다음과 같이 장애교육학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장애교육학의 시각에서 보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학교 공간을 만들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학생들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며, 이러한 패러다임 안에서의 교육개혁이다. (p. 153)

엄수정(2018)은 뒤이어 발표한 논문에서 장애교육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포스트구조주의 장애교육학 관점에서 학교의 일상이 학생들의 ‘다름’을 어떻게 생성하고 해석하는지, 그러한 ‘다름’을 보이는 개인을 어떻게 주체화하며, 이 과정에서 특정 학생의 분리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분석한다.

이상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엄수정(2017, 2018)은 장애교육학이란 다양성 또는 다름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 관점의 학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론적 접근은 결국 MacDonalds(2019)가 특수교육의 이론적 접근의 6번째 단계로서 제시하였던 ‘신경다양성 접근’과 유사한 ‘다양성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학과 장애교육학 모두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 연구(엄수정, 유애란, 2015) 역시 장애학보다는 장애교육학을 중심으로 특수교육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그러나 엄수정, 유애란(2015)은 다른 2편의 연구들(2017, 2018)과는 달리 MacDonalds(2019)가 제시한 4번째 단계인 ‘비판적 현실주의(사회관계적 모델)’에 더욱 가까운 형태로 장애교육학을 설명하고 있다:

장애교육학자들은 특수교육적 지식체계가 사회의 불평등한 힘의 구조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장애 학생을 ‘위해서’ 수립된 지식 체계가 역설적으로 장애 학생을 어떻게 억압하고 차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다 자기반성적 (self-reflexive)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분석해야한다고 강조한다. (p. 4)

결국 엄수정(2017, 2018)과 엄수정, 유애란(2015)의 연구는 장애교육학은 다양성을 추구만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관습적 접근에 저항하는 이론적 접근임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4) 특수교육학 및 장애(교육)학 모두가 사용된 논문들의 이론적 특징

강종구(2014)는 특수교육학 및 장애학을 통해 특수교육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학문적 또는 철학적 논의를 다루고 있다. 강종구는 장애학과 관련하여 ‘사회모델’을 추구하는 학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특수교육학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접근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개인적인 입장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강종구(2014)는 “김병하(1998)는 특수교육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는 특수교육에 만연해 있는 전통적 관점인 기능주의 접근에서 탈피해 포스트모더니즘의 접근을 통한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p. 128)라고 언급함으로써, 특수교육학적 접근을 전통적 또는 의료적 접근으로 규정하였다.

정희섭(2017)은 통합교육과 관련하여 특수교육학 및 장애학의 관점을 다루었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특수교육학 관점으로부터 장애학 관점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장애학 관점으로는 ‘사회모델’을 통해 다루고 있었다.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국내 장애(교육)학 및 특수교육학에서 다루고 있는 문헌을 고찰한 결과 장애(교육)학과 특수교육학 사이에서는 지향하고 있는 이론적 모델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장애학의 경우 장애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특수교육학의 경우 전통적인 관점인 장애학생의 치료 또는 훈련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장애학과 장애교육학 간에도 관점에 대한 다소 차이가 발견되었다. 장애학의 경우 사회적 모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애교육학은 다양성 모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장애교육학과 관련된 연구가 3편에 불과하고 3편 모두가 엄수정이 연구자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일반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장애학을 통해 특수교육을 다루고 있는 연구 역시 장애학생의 교육을 다루는 연구들이기 때문에 장애교육학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국내에서는 현재 장애학생의 교육에 관련된 장애학의 경우 여전히 사회적 모델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신경다양성과 같은 모델의 접근은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이론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검토대상 문헌들을 분석한 결과 국내 이론적 모델은 장애(교육)학의 경우 2010년 초기에는 장애(교육)학의 경우 사회적 모델을 주로 사용하여 왔지만, 최근 들어 보다 다양한 이론적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는 달리 특수교육학의 경우에는 여전히 의료적 모델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차이는 결국 장애(교육)학의 경우 포스트모더니즘의 새로운 이론적 모델의 도출과 기존의 이론적 모델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꾸준히 변화하여 왔지만, 특수교육학의 경우 장애학생의 치료적 접근이라는 기존의 접근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아 왔으며 이를 통해 특수교육의 정체성을 장애학생 중심이라는 부분을 보다 확고히 수립하려고 노력하여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바와 같이 현재 국내 특수교육 관련 문헌에서는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을 위주로 장애와 특수교육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특수교육 학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향후 장애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과 모델을 기반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행인 것은 최근 들어 엄수정과 같은 새로운 학자들이 장애에 대한 새로운 관점, 특히 신경다양성 모델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강종구, 엄수정, 홍애령(2020)이 번역한 도서에서도 장애학 관점에서 통합교육을 논의하며 장애에 대한 관점을 확장하고 있으며, 최근 국립특수교육원(2019)에서 발간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국제비교 분석’연구에서도 기존의 특수학교와 같은 분리교육 환경 중심이 아닌 다양한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합교육 환경 등을 적극적으로 포함한 것은 고무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특수교육과 관련하여 특수교육 자체에 대한 고민과 함께 장애학생의 교육적 권리 옹호 등 특수교육에 있어서의 학문적·대상적 다양성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특수교육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부족하고,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특수교육에 대한 학문적·철학적 논의를 다룬 기존의 선행 연구(강종구, 2014) 이후 6년이 지난 현재에도 특수교육 자체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특수교육의 이론적 논의를 다루기 위하여 보다 많은 연구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제언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향후 연구에서는 특수교육학 및 장애학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제어 검색을 통한 고찰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대상을 주제어로서 ‘장애학’, ‘장애교육학’, ‘특수교육학’을 사용하는 문헌으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일부 연구들의 경우 주제어로는 ‘특수교육학’ 등을 사용하지 않지만 제목 또는 내용 등에서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정대영(2013)의 연구 ‘특수교육에서의 실증주의와 기타 관점들에 대한 담론’의 경우, 주제어에서는 ‘특수교육학’으로 검색되지 않았지만 그 내용에서는 특수교육학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주제어의 확장을 통해 본 연구에서 검토되지 못한 문헌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

둘째, 추후에는 보다 폭넓은 문헌들을 대상으로 ‘특수교육학’ 및 ‘장애학’에 대한 문헌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검토대상 문헌을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만으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특수교육학’ 및 ‘장애학’과 관련된 논의는 학술지뿐만 아니라 학위논문, 도서 등 다양한 문헌을 통해서도 다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7월 기준으로 검색방법 가운데 한 가지인 ‘RISS’를 통해 ‘주제어’로서 ‘특수교육학’에 해당되는 문헌의 경우 ‘학위논문’은 39편, ‘국내학술논문’은 34편이 검색되었으며, ‘주제어’로서 ‘장애학’에 해당되는 문헌의 경우 ‘학위논문’은 5편, ‘국내학술논문’은 50편이 검색되었다. 이와 같이 ‘장애학’을 다루는 문헌들 가운데 상당 수 문헌들은 학위논문에서도 다루어지고 있으며, ‘국내학술논문’의 경우에도 검색된 문헌들 가운데는 일반학술지로 분류되는 ‘한국장애학’에 발표된 조원일(2016)의 ‘영상매체를 중심으로 한 인문학적 장애학의 효용과 변용’과 같이 등재지/등재후보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특수교육학’ 및 ‘장애학’과 관련된 연구에 있어 ‘학위논문’을 포함하여 다양한 범위에서 발표된 문헌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특수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담론에 대하여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까지 발표된 문헌들을 중심으로 특수교육 이론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헌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담론에 대하여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다면 특수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현장에서의 이론적 경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특수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현장에서의 담론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연구를 통해 특수교육과 관련하여 현장에서는 주로 어떠한 이론적 경향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Baglieri, S. (2017). *Disability studies and the inclusive classroom: Critical practices for embracing diversity in education* (2nd ed.). Routledge.
- Bogdan, R., & Biklen, S. K. (2007).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ories and methods* (5th ed.). Pearson.
- Brantlinger, E. (2004). Ideologies discerned, values determined: Getting past the hierarchies of special education. In W. Linda (Ed.), *Ideology and the politics of (in)exclusion* (pp. 11-31). Peter Lang.
- Cheong, E. (2002). Why is it 'special'? : The social meaning of 'special educational concept' researched in a culture-historical approach.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3(1), 1-19.
[정은 (2002). 왜 '특수'인가? : 문화-역사적 관점에서 살펴 본 '특수교육학적 발상'의 사회적 의미.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3(1), 1-19.]
- Cheong, E. (2011). A reflection on special education.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2(2), 331-336.
[정은 (2011). 특수교육학에 대한 반성적 성찰.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2(2), 331-336.]
- Cho, W. I. (2016). Usefulness and transformation of humanistic disability studies: Focusing on image media. *Korean Society for Disability Studies*, 1(1), 99-122.
[조원일 (2016). 영상매체를 중심으로 한 인문학적 장애학의 효용과 변용. *한국장애학*, 1(1), 99-122.]
- Creswell, J. W. (2013).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 approaches* (4th ed.). SAGE publications, Inc.
- Farrell, M. (2014). *Looking into special education: A synthesis of key themes and concepts*. Routledge.
- Grbich, C. (2013). *Qualitative data analysis: An introduction* (2nd ed.). SAGE Publications Inc.
- Hallahan, D. P., Kauffman, J. M., & Pullen, P. C. (2012). *Exceptional learners: An 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 (12th ed.). Pearson Education, Inc.
- Jo, H. J. (2011). Disability studies revisited.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2(4), 1-25.
[조한진 (2011). 장애학에 대한 재고찰.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2(4), 1-25]
- Jung, D. Y. (2013). A discourse on positivism and other perspectives in special education .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29(4), 1-20.
[정대영 (2013). 특수교육에서의 실증주의와 기타 관점들에 대한 담론. *정서·행동장애연구*, 29(4), 1-20.]
- Kang, J. G. (2013a). The exploration about the selection of the identification of disability and special education of students to be decided as disabled.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2(3), 1-21.

- [강종구 (2013a). 장애판정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의 장애진단 및 특수교육 선택에 대한 탐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2(3), 1-21]
- Kang, J. G. (2013b). Analysis of inclusive education in foreign journals related to disability studi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2(1), 1-20.
- [강종구 (2013b). 장애학 관련 외국학술지에 나타난 통합교육 분석.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2(1), 1-20.]
- Kang, J. G. (2016). An explorat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udies related to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s and visually impaired students' research participation. *The Korean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32(3), 107-127.
- [강종구 (2016). 시각장애학생 관련 연구 특성 및 시각장애학생의 연구 참여에 대한 탐구. **시각장애연구**, 32(3), 107-127.]
- Kang, J. G. (2017). The effect of demographic factors on the selection of special education of students with mild disabiliti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6(4), 1-23.
- [강종구 (2017). 경도장애학생들의 특수교육 선택에 있어 인구통계학적 요인의 영향.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6(4), 1-23.]
- Kang, J. G. & Choi, N. (2019). The comparison of research trend by the types of disability in inclusive educatio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8(3), 209-238.
- [강종구, 최나리 (2019). 통합교육에 있어 장애 유형별 연구 동향비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8(3), 209-238.]
- Kang, J. G. & Kim, R. K. (2012). Perspectives: Social construction approach to intellectual disabilitie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14(2), 1-23.
- [강종구, 김라경 (2012). 사회구성주의 관점에서 본 지적장애의 개념과 시스템 고찰. **지적장애연구**, 14(2), 1-23.]
- Kang, J. G., Ko, H. J., & Kim, R. K. (2018). The needs for diversification of special school classroom placement for special education student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7(4), 353-379.
- [강종구, 고혜정, 김라경 (2018).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교급 배치의 다양화 방안.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7(4), 353-379.]
- Kang, J. G. & Oh, S. C. (2019). Comparative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on communication difficulties of students with severe disabiliti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for Curriculum and Instruction*, 12(4), 231-254.
- [강종구, 오세철 (2019). 중도장애학생의 의사소통 어려움에 대한 국내외 외국 연구의 비교 분석.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12(4), 231-254.]
- Kim, B. (2008). A debate on the scholastic identity of special education in Korea.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9(1), 303-323.
- [김병하 (2008). 한국 특수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 논쟁.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9(1), 303-323.]
- Kim, B. (2008). A debate on the scholastic identity of special education in Korea.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9(1), 303-323.

- [김병하 (2008). 한국 특수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 논쟁.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9(1), 303-323.]
- Kim, B. (2019).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education philosophy in Korea: Education of hope and dignity.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20(2), 261-288.
- [김병하 한국 특수교육철학의 정립: 희망과 존엄의 교육.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20(3), 261-288.]
- Kim, J. (2017). The absolute decline trends in learning disabilities enrollments and the possible reasons.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51(4), 91-113.
- [김지연 (2017). 국내 학습장애아 급감 추세와 관련된 요인에 대한 소고. *특수교육학연구*, 51(4), 91-113.]
- Kim, K. & Hong, J. (2009). Constructing views on students labeled with autism in inclusive classrooms: A comparison of teachers' perspectives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0(2), 257-284.
- [김건희, 홍정숙 (2009). 통합교육 현장에서 자폐아동에 대한 인식 재구성: 한국과 미국 교사인식의 비교.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0(2), 257-284.]
- Koh, K. (2011).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disability meaning that the visually impaired experienced. *The Korean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27(1), 25-47.
- [고강호 (2011). 시각장애인이 경험한 장애 의미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시각장애연구*, 27(1), 25-47.]
- MacDonalds, S. (2019). From 'Disordered' to 'Diverse': Defining six sociological frameworks employed in the study of dyslexia in the UK. *Insights into Learning Disabilities*, 16(1), 1-22.
- Marshall, C., & Rossman, G. B. (2011). *Designing qualitative research* (5th ed.). SAGE Publications Inc.
- Ministry of Education. (2018). *Explanation of 2015 Special Education Curriculum*. Seoul: Ministry of Education.
- [교육부 (2018).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 교육부.]
- Ministry of Education. (2019). *2019 Special Education Statistics*.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교육부 (2019). **2019 특수교육통계**. 교육부.]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 Technology. (2010). *2010 Special Education Statistics*. Seoul: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 Technology.
- [교육과학기술부 (2010). **2010 특수교육통계**.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Um, S. J. (2017). Rethinking teacher preparation through disability studies in education: Reflexive analysis of my subjective experiences as a pre-service teacher, teacher, and teacher educator.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34(2), 139-168.
- [엄수정 (2017). 장애교육학의 관점에서 제기하는 새로운 교사교육의 필요성 : 예비교사, 교사, 교사교육가로서의 '나'의 이야기에 대한 성찰적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34(2), 139-168.]

- Schreier, M. (2012).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in practice*. SAGE Publications Inc.
- Valle, J. W., & Connor, D. J. (2011). *Rethinking disability: A disability studies approach to inclusive practices*. The McGraw-Hill Companies.
- Williams, V. (2013). *Learning disability policy and practice: Changing lives?*. Palgrave Macmillan.

<Reviewed Papers in the Study>

- An, S., Im, M., & Kang, J. G. (2015). A study of disabled children's parents' participation through a view of disability studie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6*(2), 169-186.
[안상권, 임미향, 강종구 (2015). 장애학 관점을 통한 장애부모참여에 대한 고찰.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6(2), 169-186.]
- Cho, W. (2012). Rethinking policy orientation of education and welfare for disabled people from a disability studies perspective. *Korean Counci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55*(4), 45-67.
[조원일 (2012). 장애학적 관점에서의 특수교육 및 장애인복지 정책의 방향 재고 - 능력주의에 의한 인간 서열화예의 위구 -.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5(4), 125-140.]
- Choi, B. (2010). Exploring parental experiences and practices associated with disabled children: From a disability studies perspective.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1*(2), 281-309.
[Choi, B. (2010). Exploring parental experiences and practices associated with disabled children: From a disability studies perspective.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1(2), 281-309.]
- Chung, Y. (2018). A study of identification of special school in Korea. *The Journal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22*(4), 223-248.
[정용석 (2018). 한국 특수교육에서의 특수학교 정체성에 대한 고찰. **발달장애연구**, 22(4), 223-248.]
- Hwang, S. (2013). Exploring special education support directions for emotional and behavior disorder.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3*(1), 109-119.
[황순영 (2013). 정서·행동문제를 가진 아동을 위한 특수교육학 중심의 지원 방향 탐색. **교육혁신연구**, 23(1), 109-119.]
- Jung, H. (2017). Characteristics of law on the inclusive education based on multiple paradigms of disability.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6*(1), 135-160.
[정희섭 (2017). 장애의 다중 패러다임에 근거한 통합교육 관련 법률의 성격.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8(1), 135-160.]
- Kang, J. G. (2013). Analysis of inclusive education in foreign journals related to disability studi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2*(1), 1-20.

- [강종구 (2013). 장애학 관련 외국학술지에 나타난 통합교육 분석.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2(1), 1-20.]
- Kang, J. G. (2014). An exploration of the academic and philosophical trend of special education. *Special Education Research*, 13(2), 127-145.
- [강종구 (2014). 특수교육의 학문적·철학적 경향 고찰. **특수교육**, 13(2), 127-145.]
- Kang, J. G. (2016). An explorat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udies related to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s and visually impaired students' research participation. *The Korean Journal of Visual Impairment*, 32(3), 107-127.
- [강종구 (2016). 시각장애학생 관련 연구 특성 및 시각장애학생의 연구 참여에 대한 탐구. **시각장애연구**, 32(3), 107-127.]
- Kang, J. G. (2017). The effect of demographic factors on the selection of special education of students with mild disabiliti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6(4), 1-23.
- [강종구 (2017). 경도장애학생들의 특수교육 선택에 있어 인구통계학적 요인의 영향.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6(4), 1-23.]
- Kang, J. G. & Kim, K. H. (2010). The exploration of research trends of disability studies applied in special education: Based on 2000~2010 foreign studie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1(4), 375-414.
- [강종구, 김건희 (2010). 특수교육에 적용된 장애학의 연구 경향 고찰: 2000-2010년 외국 논문들을 중심으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1(4), 375-414.]
- Kim, K. H. (2016). Understanding and educating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from the perspective of disability studies. *The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6(1), 21-39.
- [Kim, K. H. (2016). Understanding and educating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from the perspective of disability studies. **유아특수교육연구**, 16(1), 21-39.]
- Kim, N. J. (2015). A study on the special education identity through education welfare program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6(2), 149-168.
- [김남진 (2015). 교육복지사업을 통해 본 한국 특수교육학의 정체성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6(2), 149-168.]
- Kim, Y. J. & Do, M. A. (2014). A discussion of special education research task on the school age of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or independent living in future adulthood.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3(3), 39-68.
- [김영준, 도명애 (2014). 발달장애학생의 미래 성인기 자립생활을 위한 학령기 중심의 특수교육학 연구과제 고찰.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3(3), 39-68.]
- Lee, S., Park, J., Park, J., & Lee, E. (2013). From disability studies, analysis of education for person with disabilities and direction. *The Korean Society of Education for Hearing-Language Impairments*, 4(1), 19-35.
- [이수연, 박종영, 박정자, 이은숙 (2013). 장애학의 관점에서 본 장애이해교육의 실태분석과 나아갈 방향.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4(1), 19-35.]

- Park, N. S. (2015). A study on disabilities human rights education in social studies from the viewpoint of disability studies. *Journal of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8*(2), 1-19.
[박남수 (2015). 장애학의 관점에서 본 사회과에서의 장애인 인권교육. **법과인권교육연구, 8**(2), 1-19.]
- Um, S. J. (2017). Rethinking teacher preparation through disability studies in education: Reflexive analysis of my subjective experiences as a pre-service teacher, teacher, and teacher educator.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34*(2), 139-168.
[엄수정 (2017). 장애교육학의 관점에서 제기하는 새로운 교사교육의 필요성 : 예비교사, 교사, 교사교육가로서의 '나'의 이야기에 대한 성찰적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34**(2), 139-168.]
- Um, S. J. (2018). Post inclusive education: Disrupting habitual framings of ex/inclusion in school. *The Journal of Politics of Education, 25*(2), 141-163.
[엄수정 (2018). 포스트 통합교육: 학교에서의 분리와 통합에 대한 탈관습적 접근. **교육정치학연구, 25**(2), 141-163.]
- Um, S. J. & Yoo, A. R. (2015). Rethinking and reimagining special education: stories of three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6*(3), 1-33.
[엄수정, 유애란 (2015). 누구를 위한 특수교육인가?: '장애학생'들이 갖는 특수교육의 의미를 고찰하기 위한 내러티브 탐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6**(3), 1-33.]
- Won, J. L. & Um, S. J. (2010). Teachers' transgression towards inclusive schooling and the role of the disability studies-informed teacher education program.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17*(1), 25-49.
[원종례, 엄수정 (2010). 통합교육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현장교사들의 경계선 넘기 (transgression)와 장애학을 기반으로 한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역할. **특수교육연구, 17**(1), 25-49.]
- Woo, C. W. (2017). Qualitative research on general elementary school preservice teachers' perspectives who participated in a disability awareness-themed performance activity. *Korean Journa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60*(4), 23-46.
[우충환 (2017). 장애인식 관련 연극수행활동에 참여한 예비초등교사들의 입장과 견해에 관한 질적연구.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60**(4), 23-46.]

<국문 초록>

특수교육학 및 장애(교육)학 관점에서 바라본 국내 특수교육 연구 현실

강 종 구 · 김 지 연

[목적] 본 연구에서는 장애학생의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특수교육학’과 장애 차별에 저항하며 다양성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장애(교육)학’을 통해 특수교육을 다루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에서는 특수교육학과 장애(교육)학의 주요 특징 및 변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최근 10년(2010년-2019년) 동안 발표된 문헌들을 분석하였다. **[결과]** 문헌분석을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특수교육의 학문적 논의에 있어서는 특수교육학보다는 장애(교육)학과 관련된 연구가 더 많이 다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특수교육의 학문적 논의는 매년 2-3편 정도만이 다루어져 왔으며, 장애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다루고 있으며, 문헌연구를 통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셋째, 특수교육학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연구의 경우 분리교육 또는 장애학생의 교육에 중점을 두는 의료적 모델을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었으며, 장애(교육)학과 관련된 연구에 있어서 사회적 모델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최근 들어 다양성과 관련된 연구들도 다루어지고 있었다. **[결론]** 본 연구는 특수교육에서 보다 많은 학문적 접근과 다양한 이론 및 대상을 다루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장애학생의 교육에 중점을 두는 ‘장애교육학’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주제어 : 특수교육학, 장애학, 장애교육학, 문헌분석, 특수교육 연구 현실

논문 접수(Received): 2020. 08. 07. / 심사 시작(Examined): 2020. 08. 07. / 게재 확정(Accepted): 2020. 09. 11.